

사사기 17-18장에 나타난 숨겨진 논쟁*

정미혜(서울신대)

1. 들어가는 말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인 사사기 17-21장은 사사들이 등장하지 않는 두 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사사기 17-18장은 미가의 집의 우상을 단 지파가 탈취하여 지파의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사건이다. 19-21장은 레위인과 그의 첩이 베냐민 땅 기브아에서 당한 강간 사건이 발단이 되어 이스라엘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전쟁으로 발전하는 이야기이다. 학자들은 이 이야기들이 왜, 언제, 누구에 의해서 사사기의 마지막에 위치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주목했다.

학자들은 사사기 마지막 부분을 해석하기 위해서 통시적인 접근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것은 신명기역사서에 속하는 사사기가 언제,

* 이 글은 '사사기 17-18장에 나타난 숨겨진 논쟁'을 주제로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진행된 제128차 구약국구약학회 춘계학술대회(2025.04.26.)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누구에 의해서 편집 되었는지를 둘러싼 논쟁으로 나타났다.¹ 사사기 17-18장이 현재와 같은 형태로 편집된 시기에 관하여 세 가지 시기가 논의 되어진다: 첫째는 기원전 7세기로 앗시리아 제국의 패권하에 유다왕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시기, 둘째는 앗시리아 제국이 부상하여 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함락된 시기이다. 셋째는 기원전 5세기로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 아래에서 포로기 이후 유다 공동체가 재편되는 시기이다.

기원전 7세기는 북왕국을 멸망시키고 레반트 지역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앗시리아 제국이 쇠퇴하는 시기였다. 이 시기 레반트 지역에 생긴 힘의 공백으로 인해 요시아가 다스리는 유다는 종교 개혁을 통해 성소 단일화를 시행하며 완전한 독립을 꿈 꿀 수 있었다. 이 시기, 요시아와 그의 지지 세력들은 개혁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문서들을 수집하고 편집했다.

요시아의 통치 시기에 사사기 17-18장이 편집되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는 얀 알베르토 소긴(Jan Alberto Sogin), 게일 이(Gale Yee), 야이레 아미트(Yairah Anit), 그레고리 T. K. 왕(Gregory T.K. Wong), 제이슨 브레이(Jason S. Bray), 마빈 스위니(Marvin A. Sweeney)를 들 수 있다. 소긴은 사사기 17-18장이 D_{tr}의 편집이 아니며, 734-732년 단 성소가 파괴된 이후에 단 성소의 정당성을 박탈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었다고 말한다.² 게일 이는 사사기 17-21장이 요시아의 개혁의 시기 혹은 그 직후에 전통적인 지파 사회에서 왕정으로의 이행의 시기 친왕권적 목적

1 신명기 역사서의 편집에 대한 논쟁은 다음을 참고하라. 이은우, “소위 신명기 역사 연구의 최근 동향”, 『구약논단』 14.3. (2008), 67-86.
 2 J. 알프레드 소긴, 『판관기』 (한국신학연구소 학술부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2), 369, 389.

을 가지고 전통적인 지파 사회를 견제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주장한다.³ 또한 아미트는 사사기 17-18장이 북이스라엘 멸망 이후에도 종교적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는 베엘을 비판하기 위한 숨겨진 논쟁을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었는데, 베엘 성소의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지하는 은폐된 수단으로 나타났을 것이라고 생각한다.⁴ 특히 아미트는 왕정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Dtr과 다르게 사사기의 마지막 이야기들은 군주제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부분이 단순한 첨가가 아니며 오히려 책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주장한다.⁵ 즉, 아미트는 17-18장만이 왕의 필요성과 무정부 상태를 강조하기 위한 사사기의 결론이며, 19-21장은 겉보기에 무정부 상태를 표현하는 것 같지만, 다른 논쟁을 가지고 작성된 후기 편집자에 의한 추가된 부록이라고 주장한다.⁶ 스위니는 사사기 17-21장이 요시야 시대 북왕국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정당성을 주장하던 시기 요시야 개혁의 이데올로기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집되었다고 주장한다.⁷ 그레고리 T. K. 왕(Gregory T.K. Wong)은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인 17-21장에 나타난 암시를 연구하면서, 사사기 17-21장의 에필로그는 나중에 덧붙여진 첨가가 아니라 저자가 본문의 서사를 염두에 두고 구성한 것이라고 주

3 Gale A. Yee, "Ideological Criticism: Judges 17-21 and the Dismembered Body," *Judges and Method: New Approaches in Biblical Studies*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5), 152-55.

4 Yaira Amit, *Hidden Polemics in Biblical Narrative*, trans. Jonathan Chipman (Leiden; Boston: Brill Academic Pub, 2000), 99-129.

5 Yairah Amit, "Endings—Especially Reversal Endings," *Scriptura* 87 (2004), 219-20.

6 윗글, 213-36; Yairah Amit, *The Book of Judges: The Art of Editing* (Leiden ; Boston: Brill, 1999), 311-13;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대한 친왕권적 신학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이희학, "사사기 17-21장과 친왕권적 신학", 『구약논단』 22.4 (2016), 250-284.

7 Marvin A. Sweeney, *King Josiah of Judah: The Lost Messiah of Israel* (Oxford; NY: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118-24.

장하며 본문과의 관련성을 연구한다.⁸ 윙은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 전체가 에필로그로 사사기의 결론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다. 브레이는 사사기 17-18장이 단 지파의 신전 건립을 통해 북왕국의 초기 종교의 실질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본문이지만 17-18장이 신명기 사가에 의해서 다층적으로 편집된 본문이라고 주장한다.⁹

기원전 6세기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의 지도층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시기이다. 바벨론 포로민들은 유다가 왜 멸망했으며, 왜 자신들이 포로로 잡혀와야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였으며 이러한 문제에 대해 신학적으로 대답하기 위해 많은 문서들을 수집하고 편집하였다.

사사기 17-18장이 기원전 6세기에 편집되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티모 베이올라(Timo Veijola), 마크 월터 바르투스쉬(Mark Walter Bartusch), 조나단 S. 그리어(Jonathan S. Greer)이다. Dtr의 편집 역사를 재구성하려고 했던 베이올라는 사사기 17-18장이 왕권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DtrG에 의한 편집이라고 생각했다.¹⁰ 베이올라처럼 바르투스쉬 역시 사사기 17-18장이 6세기 Dtr의 편집이라고 주장했다. 바르투스쉬는 비록 여로보암 시대의 서기관들은 여로보암의 정통성을 높이기 위해 고대 이야기를 만들어 단이 종교적 중심지임을 강조하려고 하였으나, Dtr은 단의 종교 중심지로서의 정통성을 훼손하고 조롱하기

8 Gregory T. K. Wong, *Compositional Strategy of the Book of Judges* (Leiden ; Boston: BRILL, 2006), 135-41.

9 Jason S. Bray, *Sacred Dan: Religious Tradition and Cultic Practice in Judges 17-18* (New York: T&T Clark, 2006).

10 Timo Veijola, *Das Königtum in der Beurteilung der deuteronomistischen Historiographie: Eine redaktionsgeschichtliche Untersuchung*, (Helsinki: Suomalainen Tiedeakatemia, 1977), 137-38.

위한 목적으로 사사기 17-18을 편집했다고 주장한다.¹¹ 그리어는 Dtr이 여로보암을 비판하고 북왕국의 종교를 비난할 근거로 단 성소에 관련된 기사들이 사용되었으나, 오히려 사사기 17-21장은 여로보암 이전의 초기 전통을 전제한다고 주장한다.¹² 즉, 그리어에 따르면 사사기 17-18장에서 라이스라는 이름을 간직한 단은 북왕국의 초기 야웨 신앙을 보여주는 기사이다.¹³ 그는 북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항하기 위해 북이스라엘의 오래된 야웨 숭배의 전통적 요소를 적용하여 벵엘과 단을 북이스라엘의 종교 중심지로 내세웠다고 주장한다.¹⁴ 하지만 그 이후 Dtr에 의해서 히스기야 시기와 요시아의 시기에 단 성소를 비난함으로 오래된 북왕국의 야웨 신앙을 비난하려는 목적으로 기원전 6세기 혹은 5세기에 사사기 17-18장이 기록되었다고 주장한다.¹⁵

마지막으로 사사기 마지막 부분의 편집을 5세기 페르시아 혹은 그보다 늦은 연대를 주장하는 학자는 토마스 C. 뢰머(Thomas C. Römer)를 들 수 있다. 뢰머는 신명기 역사서가 요시아시기, 포로기, 그리고 페르시아 시기에 모두 3번 편집되었는데, 사사기 17-21장은 헬레니즘의 영향을 드러내는 이야기로 독립적인 사사기를 형성시키기 위해 신명기사가 이후에 기원전 5세기 혹은 그 이후에 편집된 것으로 보았다.¹⁶

이 외에도 사사기 17-18장에 대한 또 다른 연구의 방향은 공시적

11 Mark Walter Bartusch, *Understanding Dan: An Exegetical Study of a Biblical City, Tribe and Ancestor*, (London, United Kingdom: Bloomsbury Publishing Plc, 2003), 264-65.

12 Jonathan S. Greer, *Dinner at Dan: Biblical and Archaeological Evidence for Sacred Feasts at Iron Age II Tel Dan and Their Significance* (Leiden: Boston: BRILL, 2013), 7-41.

13 윗글, 31-41.

14 윗글, 7-41.

15 윗글, 10-14.

16 토마스 C. 뢰머, 『신명기역사서 연구』 김경식 옮김, (서울: CLC, 2020), 204, 266-267.

인 것으로 레위인에 관한 인물 연구이다. 데이비드 Z. 모스터(David Z. Moster)는 텍스트 분석을 통해 레위인이 악한 인물이라기보다는 수동적이고, 야심차고, 온유하지만 자신감이 넘치고, 도둑이면서 제사장이고, 책임감이 부족한 모순적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고 분석한다.¹⁷ 모스터와 비슷하게 데이비드 드아미코(Davide D'Amico) 역시 사사기 17-18장의 레위인에 대해 분석한다. 그는 전문성을 가지고 레위 제사장으로 행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가의 성소에서 일관되게 레위인에게 요구되는 행동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레위인의 모습에서 독자들에게 무정부 상태에서 문화적 도덕적 혼란을 보여주고자 한다고 주장한다.¹⁸

본 연구는 사사기의 통시적 접근을 받아들인다. 본 연구는 사사기 17-18장과 19-21장이 서로 다른 목적으로 다른 시기에 저술 되었다고 주장한다.¹⁹ 대부분의 사사기 마지막 장들에 대한 연구는 사사기 17-21장이 사사기의 부록이나 결론으로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저자 혹은 저자 집단에 의해서 편집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사기 17-18장은 미가의 집의 우상 숭배와 단 지파의 정착과 성소 건립을 통해 종교적 타락을 주로 다루고, 사사기 19-21장은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의 갈등을 통해 정치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러므로 사사기 17-18장과 사사기 19-21장은 서로 다르게 연구되어야 한다.

사사기 17-18장은 표면적으로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의 집안의 우상 숭배와 미가의 우상과 제사장을 탈취한 단 지파의 성소에 대한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사사기는 사사들의 이야기이다. 그러나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 사사도 아닌 미가의 이야기는 왜 들어

17 David Z. Moster, "The Levite of Judges 17-18" *JBL* 144, 4 (2014), 729-37.

18 Davide D'Amico, "The Anti-Levite of Judges 17-18," *JSOT*, 48 (2023), 36-49.

19 참조. 정미혜, "사사기 19-21장에 나타난 숨겨진 정치적 논쟁", 『구약논단』 30.3 (2024), 240-275.

가 있으며 그 목적은 무엇인가? 사사기 18장은 단 지파의 성소의 정당성을 문제 삼는다. 사사기 17-18장은 미가의 집의 우상 숭배와 단 지파의 우상 탈취의 문제를 넘어서는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사사기 17-18장의 숨겨진 논쟁이 무엇인지 본문 연구를 중심으로 밝히고자 한다.

2. 사사기 17-18장의 표면적 의미

사사기 17-18장은 세 개의 단락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단락은 17장 1-6절의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가 어머니에게서 훔쳤다가 돌려준 은 1,100으로 신상을 만들고 가정 신당을 세우는 이야기이다. 두 번째 부분은 17장 7-13절이다. 이 부분에서 새로운 인물인 유다 베들레헴에서 온 레위인의 등장한다. 미가는 방랑하는 레위 청년에게 자신의 집에 머물며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주기를 청한다. 마지막 세 번째는 18장 1-31절로 정착할 곳을 찾던 단 지파가 미가의 집을 방문하여 미가의 집의 신상을 탈취하여 자신들의 신상으로 삼고, 미가의 집의 제사장을 탈취하여 자신들이 제사장으로 삼는 이야기이다. 사사기 18장에서 정착할 곳을 찾던 단 지파는 ‘라이스’를 점령하고 이름을 ‘단’으로 바꿔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그곳에 미가의 집에서 빼앗은 신상을 두고 종교 행위를 행했다고 설명한다. 이것을 구조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I. 미가의 가정 신당	17:1-6
II. 미가의 가정 신당의 제사장이 된 레위인	17:7-13
III. 단 지파의 정착	18:1-31

사사기 17장에서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인 미가의 집은 에브라임 산지로만 언급될 뿐 특정한 도시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다. 사사기 17장 1절의 도입부는 사사기 17장의 시작이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의 집에서 일어났다고 서술한다. 에브라임 산지는 넓은 장소로 특정한 도시를 일컫는 지명이 아니다. 그에 반해 흥미로운 점은 단 지파의 정탐꾼이 소라와 에스다울 사이에서 왔다는 것(18:2), 단 지파가 소라와 에스다울 사이에서 출발한다는 것(18:11), 단 지파가 기랴여아림에 진을 친다는 것(18:11), 단 지파의 정착지의 원래 이름이 라이스였으나 단으로 바뀌었다는 것(18:29)까지 미가의 집의 위치를 제외한 모든 지명은 명확히 언급된다. 미가의 집의 위치를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는 것은 의도된 것이다. 내러티브의 시작이 되는 미가의 집의 정확한 위치를 은폐하는 것은 오히려 독자들에게 미가의 집이 어디일까를 궁금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한다.

또한 사사기 17장의 내러티브는 미가의 어머니에게 관심을 기울이게 한다. 미가는 아버지에 대한 언급 없이 미가의 어머니가 잃어버린 은을 미가가 훔쳐간 것을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미가의 어머니가 자신의 은 1,100을 훔쳐간 도둑을 저주하자 그 소리를 듣고 미가는 어머니에게 자신이 훔쳤음을 고백하고 은을 돌려준다. 태미 슈나이더(Tammi J. Schneider)는 이 내러티브에서 미가의 어머니가 들릴라일 것이라고 유추한다.²⁰ 그 이유는 첫째, 미가의 사건이 삼손 이야기 바로 다음에 등장하고, 둘째로 미가의 어머니가 소유했던 은 1,100과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들로 부터 삼손을 굴복시키는 대가로 받은 은 1,100이 동일하다는 것, 셋째로 미가의 아버지가 언급되지 않는 것 때문이다.²¹

20 Tammi J. Schneider, *Berit Olam: Judges* (Collegeville, Minnesota: Liturgical Press, 2000), 231-32.

21 윗글, 231-32.

그러나 슈나이더의 이러한 주장은 몇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완전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사기 17-18장이 삼손 이야기에 이어진다고 해서 삼손 이야기의 등장인물이 17-18장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부분의 사사들의 이야기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대체로 이전 사사들의 이야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다음 사사의 이야기에서 공유되지 않는다. 비록 사사들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사사기 17-18장의 미가의 이야기 역시 사사기의 독립된 이야기로 볼 때 앞 단락의 삼손 이야기의 등장인물인 들릴라가 사사기 17-18장에 등장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다. 오히려, 사사기 17-18장은 사사기 전체의 마지막 부분으로 봐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은 1,100 역시 들릴라가 블레셋 영주들에게 정확히 은 1,100만을 받은 것인지 혹은 받기는 한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또한 미가의 아버지가 언급되지 않지만, 만약 들릴라가 미가의 어머니라면 미가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미가의 아버지는 삼손이라고 해석이 되는가? 그러나 삼손은 에브라임 사람이 아닌 단 지파 사람이다. 들릴라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사사기에 명확히 언급되지 않으며 그저 소렉 골짜기에 산다고만 언급되어 있다(16:4). 소렉 골짜기는 유다의 영토에 가까우며 위치상 에브라임 산지로 보기 힘들다. 그러므로 미가의 어머니가 들릴라라고 추정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히려 이 이야기는 내레이터가 미가의 아버지보다 미가의 어머니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경제 활동을 하는 주체가 어머니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사기 17장의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의 집을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의 연속성에서 보기 보다는 다른 목적을 가진 독립된 이야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사사기 17장 3절에서 미가의 어머니는 미가에게 돌려받은 은으로 신상을 만들었다. 17장 3절에서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며 은을 아꼈게 거룩히 드리겠다고 말한

다. 4절은 미가와 그의 어머니가 은 이백으로 신상을 부어 만들고 새겨 만들었음을 나타낸다.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가 만든 신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만들고, 야웨께 거룩하게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 신상이 야웨와 관련 있음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인다.

사사기 17장에 나오는 신상은 몇 개이며 무엇을 의미하는가? 3절에서 우상을 의미하는 히브리어는 “페셀(פֶּסֶל)”과 “마세카(מַסֵּכָה)”이다. 돈 슬레이저(Don Slager)는 사사기 17장에서 “페셀(פֶּסֶל)”과 “마세카(מַסֵּכָה)” 두 개의 우상이 만들어졌고, 중심이 되는 것은 “페셀(פֶּסֶל)”이라고 주장한다.²² “페셀(פֶּסֶל)”은 일반적으로 나무나 돌을 깎아 만든 조각상을 가리키는데, 출애굽기 32장과 열왕기상 12장에서 아론의 금송아지와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²³ 도멘(Dohmen)은 이 용어가 주로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를 지칭하는 경멸적인 명칭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²⁴ 또 다른 단어 “마세카(מַסֵּכָה)”는 우상과 관련해서 부어 만들어진 주조된 형상을 의미하거나 금속을 가공하는 도금과 관련된 단어로, 우상과 관련하여 조각상, 부조, 그림 등을 나타낼 수 있으며 구약성경에서는 주로 우상과 관련되어 주조된 신상을 의미한다.²⁵ 그러므로 사사기 17장에서 미가와 그의 어머니의 “페셀(פֶּסֶל)”과 “마세카(מַסֵּכָה)”가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사건을 상기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17:5에서 미가는 만들어진 신상을 두기 위한 신당을 만들고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 에봇과 드라빔을 만든다. 에봇은 제사장의 의복

22 Don Slager, “How Many Idols Did Micah Have? (Judges 17.1-18.31),” *The Bible Translator* 65. (2014), 337-48.

23 Jason S. Bray, *윗글*, 64-65.

24 Dohmen, פֶּסֶל *TDOT* XII, 32-33.

25 Dohmen, “מַסֵּכָה” *TDOT* VIII, 431-432, 434-435.

이며 드라빔은 고대 사회에서 집을 지켜주는 가족신의 역할을 했는데, 사사기에서 이 두 가지 역시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²⁶ 사사기 17장은 미가의 신상이 우상이며, 미가의 신당에서 일어나는 행위가 우상 숭배에 해당하는 것을 강조한다.

사사기 17장 7-13절은 미가의 가정 신당의 제사장이 된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종교적 규범을 무시하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이다. 사사기 17장 7절에서는 베들레헴 출신 레위 청년이 등장한다. 이전 단락에서 미가는 자신의 가정 신당에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이것은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이어야만 한다는 제사장의 기준에 어긋나는 일이다. 17장 6절에서 레위 청년이 등장하자 미가는 레위인에게 자신을 위해 아버지와 제사장이 될 것을 권유한다(17:10). 여기에 등장하는 레위 청년은 수동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 미가가 레위 청년에게 출신지에 관해서 먼저 질문하자 레위 청년은 자신의 출신지를 베들레헴이라고 밝힌다. 레위 청년은 일 년에 은 10과 의복 한 벌, 먹을 것을 받고 미가의 집에서 일한다(17:10). 디아미코는 이에 대해 17-18장에 나오는 레위 청년이 레위인의 행동 방식을 무시했다고 보았다. 그 이유는 첫째, 레위인에게 주어진 도피성에서 살아야 했으나 그가 떠돌았으며, 둘째, 미가의 성소에서 자격없이 종교적 직분을 행했고, 셋째, 제사장은 신탁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 지파의 정찰병들에게 신탁을 제공한 것이다.²⁷ 디아미코의 의견은 많은 논란을 야기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레위 청년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미가의 집에서 일할 것을 선택했고, 더 커다란 이익을 위해 18장에서 자신에게 의식주를 제공한 미가의 집의 기물을 도적질해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

26 양인철, 『사사기』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문화원, 2022), 232.

27 Davide D'Amico, 윗글, 39.

이다. 이것을 통해 볼 때 레위 청년이 미가의 집에서 일을 한 것 역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함이었으며, 그 보다 더 커다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자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던 미가의 집을 배신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장 1-6절에서 보여지는 미가의 모습이 긍정적이지는 않았기 때문에 미가에게 동정이 가는 것은 아니지만, 레위 청년의 모습은 레위인으로서의 자각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사사기 17장 7-13절에 등장하는 레위 청년은 종교적 규범을 자신의 이익과 맞바꾼 사람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긍정적인 인물의 모습은 아니다. 이러한 레위 청년이 제사장이 되는 이유는 미가가 레위 청년을 고용한 이유가 단지 자신의 가정 성소에 자신의 아들보다는 조금 더 합법적인 제사장을 원했기 때문이며 이것은 규범적으로도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일임을 느끼게 만든다.

마지막 부분인 18장은 단 지파의 정착에 관한 이야기이다. 단 지파는 자신들의 정착지를 찾기 위해 방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소라와 에스다올에 거주하던 단 자손은 정착할 땅을 찾기 위해 5명의 정탐꾼을 보낸다(18:2). 정탐꾼들은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의 집을 방문하여 레위 청년을 만난다. 단 지파의 정탐꾼들은 레위 청년에게 신탁을 요청하고(18:5), 레위 청년은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야웨 앞에 있느니라”고 대답한다(17:6). 디아미코는 이것이 레위 청년이 레위인으로서 역할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디아미코에 따르면, 신탁을 받는 행위는 선지자에게 국한되며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는 우림과 둠뎀이라는 특수한 도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본문의 레위 청년은 우림과 둠뎀 없이 단 지파의 정찰병에게 야웨 신탁을 내리는데 이는 반레위적인 행위라고 말한다.²⁸

28 Davide D'Amico, *윗글*, 45.

결국 정찰병에게 소식을 들은 단 지파는 자신의 정착지로 향하기 전 미가의 집을 방문하여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탈취한다(18:18). 또한 단 지파는 미가의 집에서 일하는 레위 청년에게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기보다는 자신들의 지파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될 것을 권유한다(18:19). 이에 레위 제사장은 마음에 기뻐하며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 가지고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된다(18:20). 레위 제사장은 17-18장 가운데서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그는 단 지파가 자신을 고용했던 미가의 집의 기물을 탈취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돕는다. 미가가 뒤늦게 단 지파를 쫓으나 단지파가 더 강한 것을 보고 집으로 돌아간다(18:26). 미가와 레위 청년에 이어 단 지파는 더 부정적인 이미지로 나타난다.

17-18장의 목적이 마지막 부분에 나타난다. 단 지파는 라이스를 점령하고(18:27), 자신들의 지파의 이름을 따 단 이라고 이름 짓는다(18:29). 그리고 그 곳에 탈취한 신상을 두었다. 18장 30절에 이르러 그동안 레위 청년 혹은 레위 제사장으로 부르던 익명의 레위인이 모세의 손자이며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라고 밝힌다. 그러나 레위인의 신분은 오히려 레위인이 제사장으로 자격이 없는 것을 명확히 한다.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세의 손자는 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명확히 단 지파가 세운 단 성소를 부정적으로 보이게 만든다.

결국 사사기 17-18장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긍정적인 면 없이 부정적인 특성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가와 그의 어머니, 레위 제사장, 단 지파까지도 사사기 17-18장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에게서 긍정적인 면모를 찾기는 어렵다. 이들은 모두 종교적 규범을 어긴 인물들이며 자신들의 이익을 쫓는 사람들로 나타난다. 사사기 17-18장은 이에 대한 결론으로 반복적인 어구를 통해 “그 때에 이스라

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이라고 결론짓는다. 그렇다면 사사기 17-18장의 목적은 무엇인가?

3. 사사기 17-18장에 나타난 정치적 논쟁

1)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

사사기 17-18장의 이야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사사기 17-18장의 이야기들에는 사사들이 등장하지 않는다. 사사기 17-18장은 표면적으로 무정부적 상태를 비판하고 왕정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인다. 사사기 17-18장은 각각의 이야기들의 마지막 단락에 반복적인 문구가 등장한다.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17:6, 18:1)이다. 비록 18장 1절은 “그 때에 왕이 없었으므로”라고 짧게 소개하지만, 17장 6절을 이미 알고 있는 독자는 그 뒤에 왕이 없는 상황에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자신의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것을 암시함으로 무정부주의적인 상황이 사회에 혼돈을 가져오고 도덕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만든다.²⁹

이 반복되는 어구는 분명히 사사 시대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 사사기 17-18장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부정적인 인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이 흡사 사회의 전반적인 모습인 것처럼 보인다. 비록 반복 어구가 정치, 사회, 종교의 특정 부분의 타락을 지목하지 않더라도 사사기 17-18장의 내용은 분명히 종교적 타락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러한 종교적 타락을 야기한 것이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이

29 Yairah Amit, “Endings—Especially Reversal Endings,” 220.

야기함으로써 왕이 있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만든다. 사사기 17-18장은 암시적으로 이상적인 사회체제로 왕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즉, 사사기 17-18장은 친왕권적 결론을 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이 어구를 통해 왕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또 다른 질문을 야기한다. 그저 왕이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그리고 사사기의 본론을 떠오르게 하면서 독자로 하여금 단순한 왕이 아닌 이상적인 왕을 추구하게 만든다. 그렇다면 사사기 17-18장이 제시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왕은 누구를 말하는가? 사사기 17-18장이 제시하는 이상적인 왕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는 사사기 17-18장의 내용과 관련해서 생각해야 한다.

사사기 17-18장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가? 사사기 17장에서 중심이 되는 인물은 미가이다. 그렇다면 사사기 17장에 나타나는 미가는 누구를 의미하는가?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는 북왕국의 시조인 여로보암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인다. 첫째, 사사기 17장의 미가의 집은 정확한 도시 명이 언급되지 않는 가운데 에브라임 산지로만 언급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다른 지명들은 정확한 지명을 언급하지만 유독 미가의 집은 정확한 도시명이 언급되지 않고 에브라임 산지로만 언급된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사람이었으며(왕상 11:26),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았다(왕상 12:25). 비록 사사기 17장의 미가의 어머니가 과부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사사기 17장에서는 미가의 아버지가 언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제 활동의 주체가 어머니로만 등장하고 있다. 여로보암 역시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으로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스루아였으며 과부로 소개된다(왕상 11:26). 그러므로 사사기 17장을 읽는 독자는 미가를 통해 북왕국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을 떠올리게 된다.

둘째, 미가가 여로보암을 가리킨다는 것은 사사기 17장 3-4절에서

www.kci.go.kr

미가와 그의 어머니가 만든 우상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미가가 우상을 만들 때 사용된 단어들이인 “페셀(**פֶּסֶל**)”과 “마세카(**מַסֵּכָה**)”는 앞에서 살펴 본 것 처럼 새긴 우상과 주조된 우상을 의미하지만 특별히 여로보암의 송아지 송배를 나타낸다. 브레이는 이 단어들이 송아지 송배를 의미하는 것은 맞으나 초기 북왕국에서 송아지 형상이 야웨와 관련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새겨지고 주조된 우상들은 야웨의 임재를 나타내는 성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라고 주장한다.³⁰ 그리어 역시 여로보암의 송아지 도상은 남유다와는 다른 방식으로 야웨를 표현한 것으로 군주제 이전 시기 만연했던 야웨 송배의 오래된 전통을 되살린 일이었다고 주장한다.³¹ 즉 브레이와 그리어의 주장에 따르면, 미가와 그의 어머니는 우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오래된 북왕국 전통에 따라 야웨의 임재를 나타내는 성물을 만든 것이다. 그러나 트렌트 버틀러(Trant C. Butler)에 따르면,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 “마세카(**מַסֵּכָה**)”가 “송아지”와 함께 쓰일 때 이것은 주조된 송아지 송배를 의미한다.³² 또한 그는 이 단어들을 통해 사사기 17-18장은 아론과 여로보암의 송아지 송배와 관련되어 있고, 이런 관점에서 사사기 17-18장의 편집자가 단 성소를 송아지 송배와 관련시키기를 원한 것이라고 주장한다.³³ 결국 사사기 17-18장의 저자는 이 단어들의 초기 의미와 상관없이 사사기 17-18장에서 이 단어를 여로보암의 송아지 송배와 연결시킴으로 미가가 여로보암이 행했던 우상 송배를 행했고 이것은 종교적 규범을 어긴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다.

여로보암의 송아지 송배는 Dtr에 의해서 우상 송배로 규정되어 비

30 Jason S. Bray, *윗글*, 64-88.
 31 Jonathan S. Greer, *윗글*, 15-24.
 32 *윗글*, 111-112.
 33 Jason S. Bray, *윗글*, 65.

난받는다. 비록 고대 전통에서 야웨의 이미지가 송아지 숭배와 관련 있는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미가의 집의 우상 숭배를 미가와 그의 어머니는 야웨 신앙과 관련시켜 생각한 것은 확실하다. 사사기 17장 3절에서 미가의 어머니는 신상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은을 야웨께 거룩히 드려진 것이라고 인식한다. 즉 이것은 미가와 그의 어머니가 자신들의 행위가 야웨께 거룩히 드려지는 행위라고 믿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사기 17-18장의 편집자는 이것이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가 북왕국에서 행해지던 초기 형태의 야웨 숭배 행위이던지,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 의도한 것이었든지, 혹은 무지해서 행한 일이던지 미가의 행위를 여로보암과 연결시키면서, 이것이 종교적 규범을 어긴 것이라고 비난한다.

셋째, 미가는 여로보암과 동일하게 자신의 개인 성소의 제사장으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선택한다. 미가는 처음에는 자신의 아들을 세우고(17:5) 자격이 없는 베들레헬 출신 방랑하는 레위 청년을 세운다(17:12). 미가의 아들은 레위인이 아니며, 베들레헬 출신 방랑하는 레위 청년이 비록 레위지파 소속이긴 하지만 아론의 자손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레위 청년이 아론의 자손이 아니라면 그 역시 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다. 사사기 18:30은 레위 청년이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라고 밝히지만, 이것은 오히려 미가와 단 지파가 자격 없는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임명했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 된다.

사사기 17-18장은 암시적으로 여로보암의 행위를 떠올리게 한다. 열왕기상 12장 31절에는 여로보암이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어는 여로보암이 제사장 가문의 파벌 갈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사장의 역할을 백성 범위로 끌

어내는 고대 전통을 되살렸을 것이라고 주장한다.³⁴ 족장시대 아브라함이나 야곱이 제단을 쌓은 것이나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희생 제사를 주관한 것(출18장)등을 볼 때 레위기 이전의 전통에서 평신도가 제사장을 대신했던 전통이 있었으며 여로보암은 이러한 전통을 되살리고자 했을 것으로 보여진다. 물론 사사 시대 기드온(삿 13:19)을 비롯하여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 기간에도 비레위인이 제사장으로 임명되어 제사장의 의무를 수행했다.³⁵ 그러나 이것은 Dtr에 의해서 비판 받으며 사사기 17-18장 역시 이 부분을 종교적인 무질서라고 암시하고 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사사기 17장에 나오는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가 북왕국의 시조인 여로보암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여로보암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미가는 암시적으로 북왕국의 여로보암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미가의 행위들이 종교적 규범을 어긴 행위라는 것을 보여줌으로 사사기 17-18장의 편집자는 여로보암 역시 종교적 규범을 어긴 것이며, 결국 그로 인해 북왕국이 멸망했다는 것(18:30)을 숨겨진 논쟁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

2) 사사기 18장의 숨겨진 논쟁

사사기 17장에서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가 북왕국의 시조인 여로보암을 의미한다면 사사기 17-18장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사사기 17-18장은 숨겨진 논쟁을 통해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숭배를 우상숭배로 비판하고 있다. 숨겨진 논쟁을 통해 사사기 17장이 여로보암의 우상숭배를 비판한다면, 사사기 18장은 표면적으로 종교 중심지로서 단을 비판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사기 18장의 숨겨진 논쟁은 무엇인가?

34 윗글, 36-39.

35 윗글, 38-39.

만약 사사기 18장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두었던 단 성소를 비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또 다른 질문을 야기한다. 왜 하필 단인가? 왜 이 비판에 벤엘은 빠져 있는 것인가? 여로보암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백성들이 유다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송아지를 만들어 벤엘과 단에 각각 두었다(왕상 14:26-30). 여로보암이 벤엘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둔 이 행위로 인해 여로보암은 신명기 역사서에서 지탄받는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역사서에서 여로보암의 행위는 북이스라엘 왕들의 판단 기준이 되었다. 북이스라엘 왕들은 이후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라고 심판의 기준을 제시받는다. 만약 여로보암의 행위가 잘못이라면 단과 함께 벤엘도 비난 받아야 한다. 그러나 사사기 17-18장은 단만을 명시적으로 언급한다.

이에 대해 아미트는 사사기 17장이 단을 비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숨겨진 논쟁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벤엘을 비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³⁶ 아미트에 따르면, 단과 달리 벤엘의 종교적 중심성은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고 유배된 후에도 계속되었기 때문에 요시야 시기 저자는 공개적으로 벤엘을 비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은밀한 논쟁을 통하여 벤엘을 비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저자는 예루살렘을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³⁷ 이러한 아미트의 주장은 일견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과연 사사기 17-18장이 벤엘만을 공격하고 있는 것인가?

36 Yairah Amit, “Hidden Polemic in the Conquest of Dan: Judges XVII-XVIII,” *Vetus Testamentum* 40.1 (1990), 4-20; Yairah Amit, *Hidden Polemics in Biblical Narrative*, 99-129.

37 Yairah Amit, *Hidden Polemics in Biblical Narrative*, 117-118.

3) 사사기 17-18 숨겨진 논쟁: 요시아 개혁을 지지하기 위한 정치적 논쟁

우리는 앞에서 숨겨진 논쟁을 통해서 사사기 17장이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숭배를 비판하고, 사사기 18장이 단을 통해 벧엘을 상기시킴으로 종교 중심지로서 기능하는 벧엘을 약화시키기 위한 숨겨진 논쟁을 사사기 17-18장이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과연 사사기 17-18장의 숨겨진 논쟁이 단이 아닌 벧엘만을 은밀하게 공격하기 위해 단을 표면에 내세우고 벧엘을 은밀하게 공격함으로 예루살렘을 지지하는 것일까? 여로보암은 왜 벧엘과 함께 단에 황금 송아지를 두었을까?

사사기 18장은 단을 이야기함으로 단과 함께 여로보암의 국가 성소로 역할을 했던 벧엘을 겨냥하고 있다. 사사기 17-18장에서 미가의 집이 위치한 도시명은 정확히 언급되지 않지만, 미가는 에브라임 산지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 “하나님의 집”을 세운다. 벧엘(בֵּית־אֵל)의 히브리어 의미가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기 때문에 독자들은 사사기 17-18장이 암시적으로 벧엘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³⁸ 벧엘은 족장 시대 아브라함과 야곱에게까지 소급되는 오래된 종교 중심지로서 역할을 했으나(창 12:8; 28:10-22) 신명기 역사서에서 여로보암의 종교 행위로 인해 금송아지 숭배를 대표하는 성소가 된다(왕상 12:26-30). 그러나 벧엘과 함께 단 역시 여로보암 시대 왕실 성소로서 역할을 했다. 요하난 아로니(Yohanan Aharoni)는 벧엘과 단을 선택한 이유가 사사 시대의 특징이었던 영토의 경계를 상징하기 위해 사원, 제단, 신성한 표식을 세운 것에 기인해서 영토의 가장 경계 지역인 벧엘과 단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³⁹ 벧엘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에 위치하고 있어 유다와 가깝

38 Yaira Amit, *Hidden Polemics in Biblical Narrative*, 110.

39 Yohanan Aharoni, “Arad: Its Inscriptions and Temple,” *The Biblical Archaeologist*, 31.1 (1968), 29.

고 단은 북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물론 베엘이 가지고 있었던 오래된 종교 전통이 베엘이 국가 성소가 되는 것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열왕기하 17장 28절에 따르면 베엘은 사마리아 멸망한 이후에도 종교적인 중심지로서 역할을 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단의 지리적 문제도 간과할 수는 없다. 사사기 17-18장은 직접적으로 단을 숨겨진 논쟁으로 베엘을 함께 공격하고 있다.

더 나아가 브레이는 여로보암이 단을 선택한 이유를 몇 가지 제시한다. 여로보암이 단과 베엘에 금송아지 형상을 둔 것은 새로운 종교를 창시하거나, 야웨 종교와 다른 종교로 개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단에 존재하던 고대 형상 숭배 전통을 계승하거나 복원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⁴⁰ 심지어 사사기 18장 30-31절은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 단이 종교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나타난다. 이것은 베엘과 실로와 함께 단 역시 북왕국의 종교 중심지 가운데 하나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브레이는 단에서의 송아지 숭배가 국가 차원의 공식 제의 였다는 것을 강조한다.⁴¹ 여로보암은 베엘과 단에 국가 성소를 세우고 금송아지를 세워 국가 제의로 자리매김시켰다. 그러므로 국가 성소로서 단의 위상 역시 작지 않았을 것이다. 게다가 사사기 18장 30절은 단의 제사장이 모세의 손자라고 주장하며 단 성소가 모세의 권위를 빌리고 있음을 시사한다. 모세가 차지하는 위치를 볼 때, 아론계 제사장과는 다르지만 단 성소가 종교적 권위를 가지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를 통해 볼 때, 결국 숨겨진 논쟁으로서 사사기 18장은 단과 베엘을 함께 비판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사기 17-18장이 쓰여진 목적은

40 Jason S. Bray, *윳글*, 68-71.

41 윳글, 71-73.

무엇인가? 사사기 17-18장은 종교 중심지로서의 벳엘과 단을 비판하지만 이것은 여로보암의 죄와 북왕국의 종교 행위를 비난 하는 것이다. 사사기 17-18장은 표면적으로 왕정 이전의 정치, 사회, 종교적인 잘못을 통해 왕정으로 나아가는 과도기를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종교적 잘못을 언급하고 있다.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가 우상을 만든 것은 사사 시대에 종교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단 지파가 라이스를 점령하여 도시를 건설하고 자신들의 신당을 세운 것은 북왕국 시대 종교 중심지였던 단과 단을 통해 상기되어지는 벳엘을 비난 하는 것이다. 즉 사사기 17-18장은 종교적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왕이 이상적인 왕이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사사기 17-18장의 저자는 왜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숭배를 비판하고 단과 벳엘의 종교적 중심지로서 권위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일까? 우리는 이야기가 지리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규범과 어긋난 일들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 이야기에서 자식인 미가는 어머니의 은을 훔치고(17:3),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 삼고(17:5), 자격 없는 레위인을 제사장 삼는다(17:7) 미가의 어머니는 돌려받은 은을 사용해 야웨께 기록하게 쓰기 위해 신상을 만든다(17:3-4). 이 과정에서 미가와 그의 어머니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 레위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레위인으로서의 역할을 소홀히 하고(17:7-13), 단 지파는 다른 사람의 신상과 제사장을 탈취한다(18장). 사사기 17-18장의 내레이터는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결론 내린다. 이 반복 어구는 사사기 17-18장의 결론으로서 정치, 사회 전반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진술하지만, 실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종교적인 부분이다. 사사기 17-18장은

북 이스라엘의 멸망을 종교적 우상숭배로 귀결시키며, 북왕국의 초대 왕 여로보암을 원인 제공자로 암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독자는 이렇게 자신의 눈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바로 잡을 이상적인 왕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

결국 사사기 17-18장은 요시야 개혁의 이데올로기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프로파간다로서 현재의 자리에 위치하게 되었다. 북이스라엘의 종교 중심지를 숨겨진 논쟁을 통해서 공격해야 하는 시기는 유다 왕 요시야의 통치시기이다. 북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을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로 단정함으로써 북왕국의 지도자들을 약화시키고 요시야 개혁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요시야와 그의 지지자들은 사사기 17-18장을 이 자리에 위치시켰다.

특히 단과 베엘을 비롯한 북왕국의 종교 중심지들의 종교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심판하는 것은 요시야의 개혁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필요한 행위였다. 기원전 722년 북왕국이 멸망하고 요시야는 남유다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종교 개혁을 단행하였다. 비록 그 시작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였지만, 결국 유다를 넘어서 옛 이스라엘의 영토였던 사마리아까지 그 영역을 확장했다(왕하 23장). 그 중에서도 요시야의 칼은 베엘을 향했다(왕하 23:15-20). 요시야는 여로보암이 베엘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헐고, 빵아서 가루를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다(왕하 23:15-18). 그리고 베엘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사마리아의 각 성읍에서 행했다(왕하 23:19)고 설명한다. 이를 통해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이루고자 할 때 가장 힘들었던 지역이 베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요시야가 직접적으로 비판하고자 했던 것은 단순한 베엘에 대한 정당성 약화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정치적 정당성을 약화시키고 남유다 특히 자신의 개혁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는 멸망한 북이스라엘까지 자신의 영향력을 확장시키는 데 필요한 일이었다. 오래

된 종교 전통을 지니고 있었던 산당들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도 종교 중심지로서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합시키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사사기 17-18장은 표면적으로 단의 종교 행위를 비난하지만, 이를 통해 단과 함께 벤엘의 종교 행위를 비난하고 넘어서 북이스라엘의 종교 행위의 기준을 제시하는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를 비난함으로 요시아의 개혁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숨겨진 정치적 논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4. 나가는 말

사사기 17-18장은 종교적 규범을 어긴 것에 대해 비난하고 있다. 사사기 17장은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미가와 그의 어머니가 훔쳤다가 돌려받은 돈으로 신상을 만들고 가정 신당을 세우고 자격이 없는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는다. 18장에서는 미가의 집의 레위인이 자신을 고용한 미가를 배신하고 자신들의 거주지를 찾는 단지파와 함께 미가의 신상을 탈취해 단 성소를 세우는 내용이다.

17장은 표면적으로 미가와 그의 어머니의 종교적 행위를 비난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미가가 의도적으로 여로보암을 암시하기 때문에 이는 숨겨진 논쟁을 통해 북왕국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숭배를 비난하고 있다. 미가가 훔쳤다가 돌려준 은으로 만든 신상들은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형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의도되어졌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벤엘과 단에 국가 성소를 세우고 북이스라엘 제의를 확정지은 사람이다. 18장은 표면적으로 단 성소의 종교 행위를 비난할 뿐만 아니라 숨겨진 논쟁을 통해서 단 성소와 함께 상기되어지는 벤엘의 종교적 중심지로서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다.

사사기 17-18장은 북이스라엘 멸망이후에도 종교적 중심지로서 기능하는 북왕국의 종교 중심지들을 비난함으로써 북이스라엘의 종교 행위를 낮추고, 남유다와 예루살렘 성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시야 지지 세력의 숨겨진 정치 논쟁이다. 특히, 사사기 17-18장의 숨겨진 논쟁은 요시야 개혁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종교적 규범을 어긴 북왕국 특히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숭배와 그가 세운 단과 벨엘이 종교적 중심지로 기능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비록 사사기 17-18장이 쓰여질 당시는 북이스라엘과 사마리아가 멸망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오래된 종교 중심지들은 그 역할을 하고 있었다.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요시야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성전 단일화를 이루어 강력한 중앙 집권을 이루길 희망했다. 뿐만 아니라, 요시야는 영토를 옛 북이스라엘 영토까지 확장하여 통일된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고자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통일된 이스라엘과 유다를 만들어 다윗의 옛 영토를 회복하기를 꿈꾸는 요시야에게 있어서 멸망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는 북이스라엘의 오래된 성소들은 다루기 힘든 장소였다. 그러므로 북이스라엘 종교 중심지의 성소들을 파괴하고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정당성을 확보해 통일된 이스라엘을 이룩하기 위해 사사기 17-18장에서 숨겨진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 뢰머, 토마스 C. 『신명기역사서 연구』 김경식 옮김. 서울: CLC, 2020.
 버틀러, 트렌트. 『사사기』 (조호진 옮김) (서울: 솔로몬, 2011)
 양인철, 『사사기』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문화원, 2022)
 이은우, “소위 신명기 역사 연구의 최근 동향”, 『구약논단』 14.3. (2008), 67-86.
 이희학, “사사기 17-21장과 친왕권적 신학”, 『구약논단』 22.4 (2016), 250-284.

- 소건, J. 알프레드. 『관관기』 (한국신학연구소 학술부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2).
- 정미혜, “사사기 19-21장에 나타난 숨겨진 정치적 논쟁”, 『구약논단』 30.3 (2024), 240-275.
- Aharoni, Yohanan. “Arad: Its Inscriptions and Temple,” *The Biblical Archaeologist*, 31, no. 1 (1968), 1-32.
- Amit, Yaira. “Endings—Especially Reversal Endings,” *Scriptura*, 87 (2004), 213-36.
- _____. *Hidden Polemics in Biblical Narrative*. Translated by Jonathan Chipman. Leiden; Boston: Brill Academic Pub, 2000.
- _____. *The Book of Judges: The Art of Editing*. Leiden; Boston: Brill, 1999.
- _____. “Hidden Polemic in the Conquest of Dan: Judges XVII-XVIII,” *Vetus Testamentum* 40, no. 1 (1990): 4-20.
- Bartusch, Mark Walter. *Understanding Dan: An Exegetical Study of a Biblical City, Tribe and Ancestor*. London, United Kingdom: Bloomsbury Publishing Plc, 2003.
- Bray, Jason S. *Sacred Dan: Religious Tradition and Cultic Practice in Judges 17-18*. New York: T&T Clark, 2006.
- D’Amico, Davide. “The Anti-Levite of Judges 17-18,” *JSOT*, 48 (2023): 36-49.
- Moster, David Z. “The Levite of Judges 17-18,” 144, no. 4 (2014): 729-37.
- Greer, Jonathan S. *Dinner at Dan: Biblical and Archaeological Evidence for Sacred Feasts at Iron Age II Tel Dan and Their Significance*. Leiden; Boston: BRILL, 2013.
- Schneider, Tammi J. *Berit Olam: Judges*. Collegeville, Minnesota: Liturgical Press, 2000.
- Slager, Don. “How Many Idols Did Micah Have? (Judges 17.1-18.31),” *The Bible Translator* 65. (2014), 337-48.
- Sweeney, Marvin A. *King Josiah of Judah: The Lost Messiah of Israel*. Oxford; NY: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 Veijola, Timo. *Das Königtum in der Beurteilung der deuteronomistischen Historiographie: Eine redaktionsgeschichtliche Untersuchung*, Helsinki: Suomalainen Tiedeakatemia. 1977.
- Wong, Gregory T. K. *Compositional Strategy of the Book of Judges*. Leiden; Boston: BRILL, 2006.
- Yee, Gale A. “Ideological Criticism: Judges 17-21 and the Dismembered Body.” In *Judges and Method: New Approaches in Biblical Studies*, 146-70.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5.

검색어

사사기 17-18, 숨겨진 논쟁, 여로보암, 벨엘, 단

[ABSTRACT]

The Hidden Polemic in Judges 17-18

Mi-Hye Jung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Judges chapters 17-18 is propaganda serving as a hidden polemic by Josiah and his supporters to secure the legitimacy of Judah and the temple in Jerusalem. On the surface, Judges 17-18 criticizes Micah from the hill country of Ephraim, the Levite priest, and the tribe of Dan for violating religious norms. However, through a hidden polemic, it raises criticism against the role of the old sanctuaries of the northern kingdom as religious centers. On the surface, chapter 18 criticizes the religious practices of the Danite sanctuary; through a hidden polemic, however, it undermines the religious legitimacy of Bethel, which is mentioned alongside Dan. This was ultimately written with the purpose of securing the legitimacy of Josiah's reform and undermining the authority of the old sanctuaries of the northern kingdom.

key words

Judges chapters 17-18, Hidden Polemic, Jeroboam, Bethel, Dan

투고일 : 2025년 07월 17일

심사일 : 2025년 08월 29일

게재 확정일 : 2025년 09월 01일

www.kci.go.kr